



찬불동요 뮤지션
이종만·정유탁

들어서 즐겁고 불러서 신나는 **풍경소리**



데뷔 8년차, 그동안 발매한 앨범만도 17장, 수록곡 300여곡... 어린이를 위한 찬불동요에 전력을 쏟아온 '좋은 벗 풍경소리', 이종만(45) 씨와 정유탁(31) 씨. 웬만한 기성가수에도 뒤지지 않는 뮤지션들이다.

1980년대 초, 조계사 어린이 법회에서 지도교사와 초등학생 불자로 만났던 두 사람의 인연은 '불교'와 '음악'이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꾸준히 이어졌다. 그리고 이 인연으로 1994년, 어린이 찬불동요를 정립, 발전시키겠다는 발원을 담은 풍경소리가 탄생했다. 당시 어린이 포교에 대한 중요성은 부각됐지만, 찬불동요 분야는 말 그대로 황무지나 다름없었다. 풍경소리의 출발과 함께 어렵게 발심해 어린이 포교에 뛰어들 두 사람의 고행도 시작됐다.

"건물 임대료는 고사하고 사무실 운영비, 앨범 작업비가 정말 한 푼도 없었어요. 하지만 앨범은 빛에 쫓기면서도 매년 빠짐없이 발매되더라고요." (정유탁)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하니까 음반작업 같이 했던 사람들 중에 떠난 이들도 많아요. 끝까지 버티고 있는 유탁 씨나 제가 미려한거죠(웃음)." (이종만)

제대로 된 후援 없이 근근이 버티오던 풍경소리의 살림은 10집을 만들던 지난 2000년,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 두 사람이 '이제 그만두자'고 허탈한 결심을 한 찰나, 운문사에서 연락이 왔다. 풍경소리의 딱한 처지를 전해들은 당시 학인 스님들끼리 푼푼이 거둬 500만원의 후원금을 내놓은 것이다. 이를 시작으로 청량사 주지 지현 스님(현 풍경소리 총재), 덕신 스님(풍경소리 2대 회장) 등 뜻있는 스님들이 '풍경소리를 살려보자'고 뛰어들었다. 풍경소리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 것이다.

"정말 감사해야 할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과의 인연은 어린이 포교를 위한 음악활동을 계속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느끼게 합니다." (이종만)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의 1천여 회원과 후원회원 3백여 명은 풍경소리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고 있다. 지난 12월 12일에는 2001년 1월에 이어 11집에서 16집까지의 노래를 모은 <악보모음집 2>의 출판기념회 겸 후원의 밤도 가졌다.

"1집, 2집 때 노래했던 코랄리가 꼬마 풍경들이 벌써 대학생들이 된 모습을 보면 정말 감회가 새롭죠. 어린이 불교학교에서 아이들이 재잘재잘 풍경소리의 노래를 합창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저희들에게는 보람과 힘이 됩니다." (정유탁)

그동안 수차례 어려운 고비를 넘겨왔지만 풍경소리가 가야할 길은 아직 멀다. '오늘은 좋은 날', '길 떠나자'처럼 듣기 편하고 따라 부르기 쉬운 대중적인 찬불가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하기 때문이다.

"꼭 불자가 아니더라도 즐길 수 있는 찬불가를 만들어야지요. 이웃종교처럼 젊은이들이 일반 음반매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세련된 앨범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풍경소리가 반드시 자생력을 갖춰야 하고요." (이종만)

10년 가까운 세월동안 찬불가와 어린이 불자를 위한 신심 하나만으로 달려온 풍경소리. 이들은 앞으로도 변치 않는 음성공양으로 자신들을 기다려준 불자들에게 화답할 것이다. 이제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불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아닐까.

후원계좌 (농협, 예금주: 풍경소리) 053-02-111616, 문의전화 (02)723-9836
글=한상희 기자 · 사진 고영배 기자



찬불동요 황무지속
어린이 포교위해 출발
재정 악화때
스님들 도움으로 재기
천여 홈페이지 회원,
3백여 후원회원
든든한 힘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찬불가 보급위해 노력



법구경 강의 80송

불교방송에서는 동국대 교수, 법산스님의 설법집《법구경 강의 80송》을 테이프로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각박한 현실 속 현대인들의 마음에 한구절의 시처럼 쉽게 다가오는 법구경을,

법산스님은 알기쉬운 생활방편을 곁들여 불교를 접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잔잔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잠 못 이루는 사람에게 밤은 길어라.
피곤한 사람에게 길은 멀어라.
어리석은 사람에게 생,사 길거니
그는 바른 법을 모르기 때문일세.

- 법구경 수삼품

구입문의 불교방송 포교자료팀
전화 (02)706-3502~5
가격 70,000원(C70×20EA)

BBS 불교방송

서울FM101.9MHz · 부산FM89.9MHz · 광주FM89.7MHz · 대구FM94.5MHz · 청주FM96.7MHz · 춘천FM100.1MHz

